

한빛원전 수명연장 '일방통행'...2차 수명연장 언급까지

영광 한빛원전 수명연장 위한 2차 주민공청회 가보니

한수원, 형식적 답변...주민들 "의문점만 남아" 의견차만 확인
주민들 "방사선 영향 등 보완조치 없이 수명연장 절대 안된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영광 주민공청회가 우여곡절 끝에 개최됐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영광지역 주민들간의 이견차만을 확인하는 자리로 끝났다.

한수원 관계자들은 1차 수명연장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10년 뒤 추가 2차 수명연장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지역민의 반발을 사는 등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11일 한수원은 영광군 영광읍 호텔더스타에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2차 영광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1·2호기는 각각 2025년 12월, 2026년 9월 설계수명(40년)이 만료된다.

지난 7월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1차 공청회에 이어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영광 주민 350여명이 참석해 끝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한수원이 수명연장 반대 목소리를 누르기 위해 행사를 폐쇄적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단체와 타 지역 주민의 공청회장 입장이

불가능했다. 한수원측은 입장자들의 주소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모두 확인했다.

한수원은 "다른 뜻은 없으며, 장소가 협소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공청회 시작전 "주민공청회는 찬·반을 다루거나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며 주민 의견을 최종평가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주민 대부분은 사전 접수한 의견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명연장 시 지역 내 방사능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하다', '노후 화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은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되는가',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등이다.

답변자로 나선 한수원 중앙연구원, 한빛본부 대외협력처 관계자 8명은 한 목소리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수명연장을 해도 현재와 방사선 양은 거의 같을 것", "사고로 인한 영향은 심사지점에 의해 평가한

다.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사업자인 한수원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해달라.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답변했다.

수명연장을 반대해온 김춘태 영광군 흥농읍 비상대책위 상임위원장은 "방사선 영향평가 초안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주민과의 소통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동석 설비개선처 부장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려 했으나 불가피하게 전문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정원수 설비개선처장도 "그동안 법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던게 사실"이라며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들이 설명을 드릴겠다"고 답변했다.

일부 주민들은 한수원의 답변에 "의문점이 남아 있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임에도 '질문이 너무 많다'는 등 질문권이 묵살당했다"면서 "형식적인 공청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수원 관계자가 2차 수명연장 가능성을 언급해 주민 반발을 샀다.

정원수 한수원 설비개선처장은 "미국의 경우 20년, 40년까지 수명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2차 수명연장에 대한 부분은 1차가 끝나고 난 뒤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군 주민들이 11일 영광군 호텔 더스타 웨딩컨벤션에서 열린 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에 주민들이 항의하자 정 처장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공청회에 앞서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한수원은 주민이 요청한 전문가를 공청

회에 참석시키겠다고 영광군과 합의했지만 묵살됐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사회자와 좌장 선정에 관해서도 주민과 최소한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한편 영광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고창에서 주민공청회가 열린다.

/영광 글·사진·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또 '5·18 왜곡' 현수막...5·18재단, 정당 고발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정당현수막(사진)을 내건 정당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엔 고발된 정당은 최근 광주도심에 왜곡 현수막을 걸어 고발당한 정당과 다른 정당이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지난 10일 자유민주당과 고영주 당대표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자유민주당이 최근 5·18기념공원과 주남마을 등지에 '권영해(전)안기부장, 5·18에 복한개입은 사실, 현재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스카이데일리 특종보도)'라는 내용의 정당현수막을 게시해 5·18 왜곡·폄훼를 자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광주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개정되고 5·18을

왜곡·폄훼하는 정당현수막을 제재할 수 없게 되자 5·18왜곡처벌법을 들어 고발 조치하고 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피고발인들은 사법부 등에 의해 수 차례 허위로 평가된 바 있는 사실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5·18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진실을 호도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5·18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종합보고서에 명시된 대정부 권고사항 이행계획과 조치 결과에도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지난 8월 27일에도 같은 장소에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가가호호공명선거당(창당준비위원장 민경욱)'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전남 수능 응시자 증가 3만787명...전년비 845명 늘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를 광주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1만6846명, 전남은 1만3941명으로 집계됐다.

11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수능 광주지역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지원자는 1만 6846명으로, 전년보다 757명(4.7%) 늘었다.

재학생은 전년도 1만1112명 대비 572명(5.1%) 증가한 1만1684명(69.4%)으로 나타났다. 졸업생은 전년도 4332명보다 88명(2.0%) 늘어난 4420명(26.2%), 검정고시생 등 기타 지원자는 전년도 645명 대비 97명(15.0%) 증가한 742명(4.4%)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의 경우 전년 대비 478명(3.6%)이 증가한 총 1만3941명이 응시했다.

응시자 중 재학생은 지난해보다 458명 늘어난 1만1192명(80.3%), 졸업생·기타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20명 늘어난 2749명(19.7%)이 원서를 접수했다. 광주·전남교육청은 고3 재학생 증가 속 의대 정원 증원·서울 16개 대학 정시 확대 등에 따른 졸업생·기타 응시자 증가가 올해 수능 응시생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에서 수능 지원자는 52만2670명으로 전년도 50만4588명보다 1만882명(3.6%) 증가했다.

전국 지원자는 재학생이 34만777명(65.2%)으로 전년도보다 1만4131명(4.3%) 증가했으며, 졸업생은 16만1784명(31.0%)으로 전년도 대비 2042명(1.3%) 증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수 백년 마을 지킨 고목들 보호수 된다

광주시, '325년' 우산동 느티나무 등 세 그루 지정

수령 325년 된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느티나무(사진)를 비롯한 고목 세 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된다.

광주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를 게시했다.

신규 지정 보호수는 광산구 우산동 1311-1에 있는 느티나무를 비롯해 북구 오치동 256-3 팽나무, 남구 양림동 201-87 수양버들 등이다.

광산구 우산동 느티나무는 수령 325년 된 노목으로, 수고(나무 높이)는 15m, 흉고 직경(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나무 직경)은 165cm다.

이 나무는 임진왜란 이후 장흥 고씨들이 이곳 마을에 이주하면서 기념식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마을의 당산나무로서 역할을 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구 오치동 팽나무는 수령 200년, 수고 15.5m, 흉고 직경 111cm의 나무로 과거 마을 주민이 농경지 인근 언덕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 심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나무에 소원을 빌면 득남(得男)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남구 양림동 수양버들은 수령 100년, 수고 12m, 흉고 직경 98cm로 1943년 인근 학강초 교교를 기념해 이식·식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광주시는 과거 양림(楊林·버드나무 숲) 등에서는 버드나무가 많이 자생했으나 현재는 개발 여파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 됐다는 점에서 양



림동에 남아 있는 수양버들이 역사성을 갖고 있으며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30일 동안 보호수 지정 예고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은 뒤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다음 달 11일 보호수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에는 13종 81그루의 보호수가 있으며 느티나무 38그루, 왕버들 13그루, 팽나무 12그루, 은행나무 5그루, 소나무 3그루 등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 이후 보호수 추가 지정을 하지 않다가 지난해 8월 광산구 박호동 동백나무 등 나무 7그루를 보호수로 지정할 때 이어 올해도 보호수 지정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보호수로 지정되면 나무 줄기가 뻗어 있는 범위 안팎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